

고흥 농수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나선다

LOCAL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수출개척단 구성...25일까지 인니·태국·베트남 방문 1000만달러 규모 수출협약...김 수출 확대 등 중점

고흥군이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을 구성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동남아 수출개척단은 전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방문한다. 동남아 수출개척단은 이 기간 동안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판촉 행사와 바이어 미팅을 진행해 고흥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의 핵심 목표는 고흥군의 농수산물을 동남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김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김 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동남아 수출개척단은 오는 25일까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을 방문한다.

표적인 김 스낵 업체인 TMK와 200만달러 규모의 김 수출협약을 체결해 태국 시장에서 고흥 김의 인지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 동양농수산물과 20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과 함께, 고흥 쌀 20t의 베트남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쌀 생산 대국인 베트남에 고흥 쌀을 수출하는 것은 그만큼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한인

마트 '원마켓(Onemarket)'에서는 김밥 시식 행사를 열어 현지 소비자들이 고흥산 김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동남아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고흥군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베트남 방문 일정 중 동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장흥, 상주자가 지원사업 선정 문화·주민 연결고리 역할 기대

장흥군은 천관문화관이 '2025년 문화기반시설 상주자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천관문화관은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창작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기대한다. 문화기반시설 상주자가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문학관·도서관·서점 등 문화 관련 시설에 작가가 상주해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관문화관은 장흥군이 2008년 전국 최초로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된 이후 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공간이다. 이창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한강 등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장흥군은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 창작 활성화 기대하고 있다. 천관문화관은 이번 상주자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문화 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이 개장 1000일 만에 매출 300억원을 달성했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누적매출 '300억' 2022년 개장 후 1000일만...판매기한 준수 소비자 신뢰 ↑

장성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이 개장 1000일 만에 매출 300억원을 넘어섰다.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2022년 6월 문을 연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은 신선한 지역 농수산물을 농가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매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농약 안전성 검사와 판매기한 준수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신뢰받고 있다. 그 결과 개장 1000일 만에 누적 매출 300억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개장 1000일을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상추, 깻잎 등 농산물 증정 행사를 갖는다. 김한중 군수는 "농업인의 팍팍함과 재단, 담당 부서의 헌신이 300억원 매출 달성으로 이어졌다"며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이 문을 열면 첨단직매장과 큰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매장 건물 2층에 들어서는 '장성한상'은 장성 농특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 양질의 음식을 선보이는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과 함께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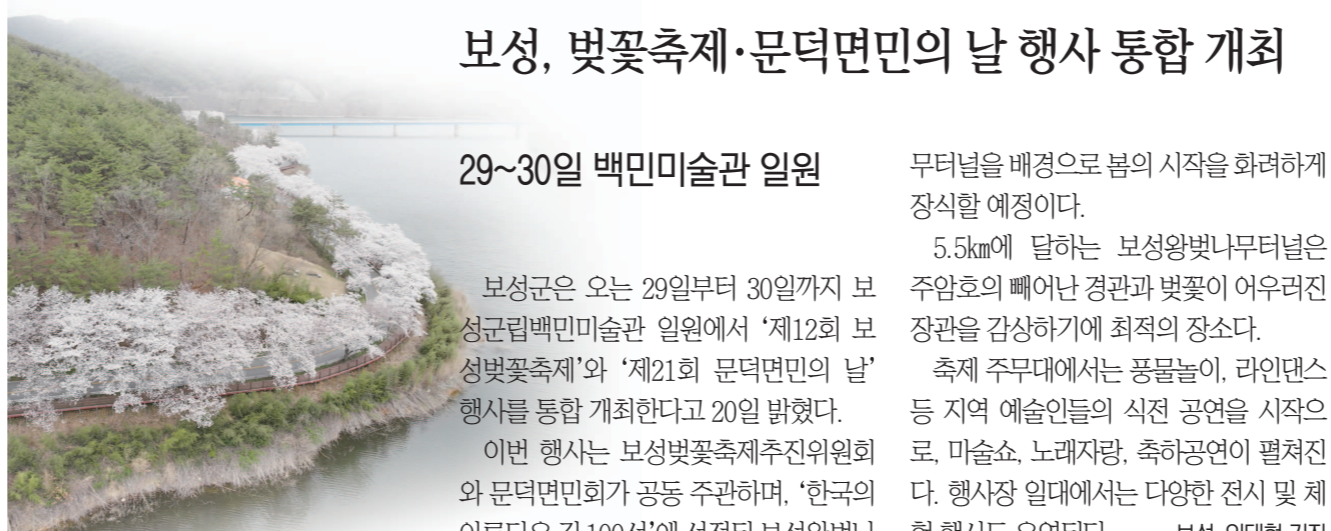
광양, 합계출산율 2년 만에 1명대 반등

지난해 1.09명...전국 78개 시 단위 지자체 중 5위

광양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잠정)이 1.09명으로 2년 만에 1명대 수준으로 반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국 78개 시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입기간(15~49세)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8년 이후 1.5 이하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지방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광양시의 출생아 수는 941명으로 2023년 대비 109명(13.1%)이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 또한 2024년 880쌍으로 전년 대비 25.9% 늘었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와 합계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인구수가 많은 1991~1995년생들이 30대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지연됐던 혼인이 증가 추세로 이어지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며 "특히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인구 정책에 힘입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신, 출산지원 정책과 인구 정책 등으로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kjn@



보성, 벚꽃축제·문덕면민의 날 행사 통합 개최

29~30일 백민미술관 일일

보성군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일원에서 '제12회 보성벚꽃축제'와 '제21회 문덕면민의 날' 행사를 통합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성벚꽃축제추진위원회와 문덕면민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보성왕벚나무터널을 배경으로 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5.5km에 달하는 보성왕벚나무터널은 주안호의 빼어난 경관과 벚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축제 주무대에서는 풍물놀이, 라인댄스 등 지역 예술인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쇼, 노래자랑,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행사도 운영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문덕면은 배경으로 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5.5km에 달하는 보성왕벚나무터널은 주안호의 빼어난 경관과 벚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축제 주무대에서는 풍물놀이, 라인댄스 등 지역 예술인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쇼, 노래자랑,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행사장 일대에서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행사도 운영된다. 보성=임태형 기자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낙산균 최초의 한국형 낙산균입니다.

VHOMÉ+

특허받은 한국산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OMÉ+

유산균 200억 CFU

유산균 200억 CFU

유산균 200억 CFU

문의전화 1588-8529